

인구소멸시대 극복... ‘장성 전성시대’ 연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장성 원더랜드 조성 등 성과 ‘발판’
인구·균형발전·경제 등 5개 분야 중점...지역 발전 견인

장성군이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장성 전성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장성군은 지난 1일 김한중 군수 주재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례조회를 열고 인구·균형발전·경제 등 중점 성장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장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 성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확정 ▲고려시멘트공장 가동 중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장성호 ‘장성 원더랜드’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구·균형발전·경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장성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문제 대응 방안을 ‘일자리’와 ‘사람의 성장’에서 찾고 있다.

2029년 완공 예정인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에 따르면 1만 25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과 장성파인데이티센터 구축, 장성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크게 일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과 백양지역 키즈레일 어린이집·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서부권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안정적인 영유아 돌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수당 지급, 대학생 8학기 등록금 지원 등 보다 나은 교육복지를 제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춘다.

11개 읍면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에도 주력한다. 428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1일 정례조회 이후 공직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장성군 제공>

협약 체결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복이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구축,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 운영 등 동·서·남·북 고른 성장을 이뤄간다.

안전분야에선 황룡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응, 신규 소각시설

설치 등 군민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소규모 마을축제 개최, ‘장성 방문의 해’ 운영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장성호 제3출렁다리, 측량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에도 힘쓴다.

지역경제 성장도 유도한다. 정부의 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관광수요-지역소비’ 연결로 골목상권을 되살린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장성호 체육시설 등 확대된 ‘체육 인프라’는 생활체육인 유입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8기 4년의 첫 일정도 군민께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군민·공직자와 손잡고 인구소멸시대를 극복하겠으며 ‘천년 숲’을 조성하는 마음가짐으로 희망을 심어 ‘장성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십이몬과 별빛 따라 걸어요”...강진 가우도, 체험형 야간섬 ‘변신’

다양한 야간체험 콘텐츠 준비

강진군이 가우도를 사람들이 머물고 체험하는 스토리형 체험섬으로 탈바꿈시키는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강진의 대표 섬 가우도의 자연경관 위에 빛과 캐릭터, 기술을 덧입히는 사업이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십이몬 레이스’라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다. ‘십이몬’은 열두 띠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귀여운 외형에 각기 다른 개성을 지녔다.

이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섬 전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 레이스의 주인공이다. 전설 속 옥황상제의 달리기 경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콘텐츠는 과거 2등에 머물렀던 ‘소’가 다시 1등을 노리며 펼치는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된다.

소의 십이과 불리는 가우도에서 열두 캐릭터는 다시 한 번 달리고 관람객은 각자의 띠를 응원하거나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형 미디어 포토존, 십이몬 스퀘어, 럭키 십이몬 체험존 등 MZ 세대를 사로잡을 야간체험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진군은 기술과 이야기, 감성이 어우러진 콘텐



강진 가우도 야간경관 구축사업.

츠를 통해 가우도를 단순한 관광지에서 ‘밤에 머물고 싶은 섬’, ‘경험을 남기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험형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콘텐츠 산업의 접점을 넓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우도

를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신들의 섬, 가우도’를 통해 지역의 관광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체험형 해설관광 ‘화순 역사문화탐방’ 운영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야경·적벽 코스로 구성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오는 9월까지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하나로 엮은 체험형 해설관광프로그램 ‘2025 화순 역사문화탐방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탐방 프로젝트는 △화순야경 코스 △화순 적벽 코스 두 노선으로 구성됐으며, 총 8회 운영 예정이다. 각 회당 60명 이내로 사전 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와 해설사가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장소별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한다.

‘화순야경 코스’의 경우 환산정, 개마산 전망대, 꽃강길 음악분수, 남산공원 등을 중심으로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고즈넉한 정자 문화와 도심 속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코스로, 여름철 관광객들의 충분한 체류 시간을 보장한다.

‘화순적벽 코스’는 광주(소태역)에서 출발해 장항·보산·물염·창랑 적벽 등 화순 대표 경관지를 돌

러보며, 광역 관광 수요까지 고려한 노선이다. 탐방에는 부대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퀴즈, 만족도 조사도 포함된다.

재단은 모든 참가자에게 단체버스와 여행자보합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일정 상 식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가 동행하며, 기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일정과 코스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구종천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화순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단순 관람이 아닌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며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톡톡 튀는 환경지킴 아이디어 구경오세요”

담양군, 청소년 아이디어 전시회

담양군이 청소년의 환경 감수성과 창의적인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담빛청소년 환경지킴이 생활 아이디어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전시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담빛청소년문화의집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생활 속 환경 문제 해결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천 아이디어를 사진으로 소개했다.

전시작은 지난 5월 진행된 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총 23점의 사진 중 내부 심사를 거쳐 11점이 선정됐다.

‘재활용 수생식물 화분’, ‘공포인트 줄감’과 같

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오는 11월 열릴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표대회’와도 연계해 사진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에서 각각 2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지역 환경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사회 참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활력있는 거리 조성’ 선정...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선

32억 확보...동수·오량농공단지 정비

나주에 조성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농공단지 2곳의 기반 시설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으로 공모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동수·오량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억6000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수농공단지와 오량농공단지는 1990년대에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현재 약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나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공원·근로자 쉼터 조성, 생활 편의시설 설치, 노후 우·오수관 정비 등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내 정주 환경 질을 개선하고 공장 운영 안정성 제고, 물류 효율 향상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



나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국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동수오량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모습. <나주시 제공>

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40여원을 들여 현재 조성 중인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향후 3년간 노후화된 산단

기반 시설을 차레차레 손볼 계획”이라며 “근로자와 입주 기업, 인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무산김, 전국 하나로마트 통해 소비자 만난다

장흥군, 관산농협과 협약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친환경 무산김이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타고 전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장흥군은 지난달 30일 관산농협 회의실에서 장흥관산농협과 장흥무산김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장흥무산김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무산김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2200곳의 판매점에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장흥 무산김의 전국 유통망 진출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흥 무산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자, 전국 농협 유통망 납품이라

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라며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1월까지 161개 마을 대상
재료비·반찬배달비 등 지원

장흥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식사 부담을 덜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농번기철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161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인건비, 반찬배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마을 여건에 따라 급식 인력, 식재료 수급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마을별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존중하는 동시에 위생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